

전세계 국가개발은행의 자금조달 현황

KDB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
서대훈 (kdb14@kdb.co.kr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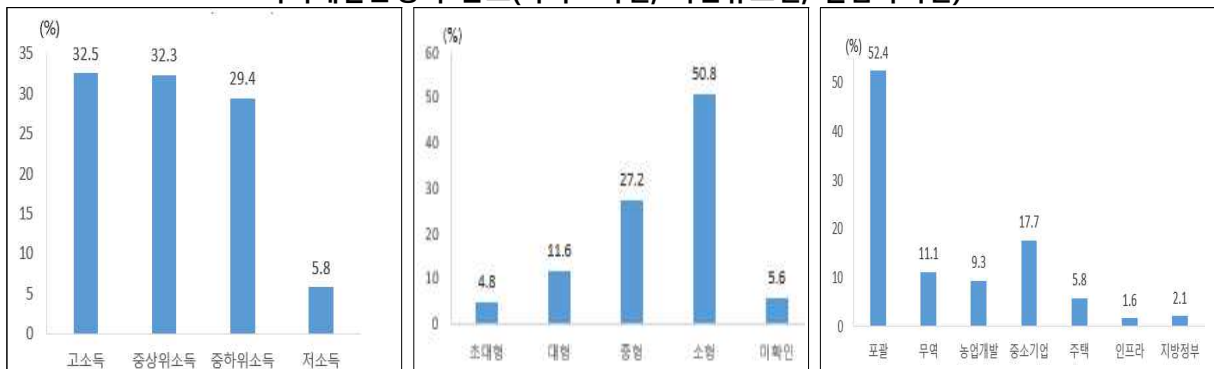
- ◆ 북경대 신구조경제학연구원이 조사한 결과, 전세계에 378개의 국가개발은행이 존재하며, 94.2%가 중하위소득 이상인 국가에 분포하고 자산규모 10억달러 미만 소형은행이 50.8% 차지
- ◆ 상업은행 대비 유보이익 활용도가 높고 장기·고위험 사업을 지원하는 업무 특성상 부채조달 비중이 낮은 수준
 - (부채조달 비중) 상업은행 87%, 국가개발은행 71%
- ◆ 자금조달 형태는 국가의 개발단계나 국가개발은행의 설립목적에 따라 상이하여, 단일의 자금조달 구조는 없는 것으로 조사

※ 본고는 '20.11월 북경대 신구조경제학연구원의 "Funding Sources of National Development Bank"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정리한 것임

□ '20.11월 북경대 신구조경제학연구원은 국가개발은행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기 위하여, 전세계 국가개발은행을 분류한 후 조달현황을 조사

- 전세계의 국가개발은행은 150여개국에 걸쳐 378개가 있으며, 94.2%가 중하위소득 (1인당 국민총소득 1,036달러 이상) 이상인 국가에 있고 자산규모가 10억달러 미만인 소형은행이 50.8%를 차지
 - 국가별 소득기준*으로는 고소득(32.5%), 중상위소득(32.3%), 중하위소득(29.4%), 저소득(5.8%) 순으로 분포
 - * WorldBank의 GNI per capita in current USD 기준으로, 저소득(소득<1,036달러), 중하위소득(1,036달러≤소득<4,046달러), 중상위소득(4,046달러≤소득<12,535달러), 고소득(12,535달러≤소득)으로 구분
 - 자산기준*으로는 소형(50.8%), 중형(27.2%), 대형(11.6%), 초대형(4.8%) 순으로 분포
 - * 초대형(1,000억달러≤자산), 대형(100억달러≤자산<1,000억달러), 중형(10억달러≤자산<100억달러), 소형(자산<10억달러)
- 설립목적별(Mandate)로 보면 특정 목적*보다 포괄적 목적(52.4%)을 주로 수행
 - * 중소기업(17.7%), 무역(11.1%), 농업개발(9.3%), 주택(5.8%), 지방정부(2.1%), 인프라(1.6%) 지원업무 순

국가개발은행의 분포(국가소득별, 자산규모별, 설립목적별)



자료 : 북경대 신구조경제학연구원

□ 장기·고위험 사업을 지원하는 특성상 상업은행 대비 부채조달 비중이 낮으며, 자금조달은 주로 채권발행을 활용

- (내부조달) 총자산 대비 이익잉여금 비중으로 계산된 내부조달 비중은 4.6% 수준
 - 다만, 당기순이익 대비 유보이익의 비중은 개발은행이 96%로 상업은행의 70% 대비 높은 편*

* 개발은행이 설립목적에 따른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하도록 정부가 유보이익 활용을 장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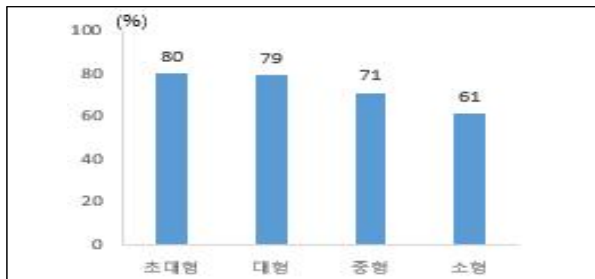
- (외부조달) 총자산 대비 부채조달의 비중이 71% 수준이었으며, 채권발행을 주된 부채조달 수단으로 활용

- 자산규모별로는 규모가 클수록 부채를 통한 자금조달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
- 상업은행(87%)과 비교시 부채조달 비중이 낮았으며, 이는 개발은행의 지원사업이 장기·고위험 프로젝트임에 따라 정부출자에 일부 의존한 것이 원인
- 기관수 비중(해당형태로 조달하는 기관수/전체 기관수)으로 파악한 외부조달의 주요 방법으로는 채권발행*(45.5%), 예수금**(28.8%), 국제기구의 공적개발원조(10.3%)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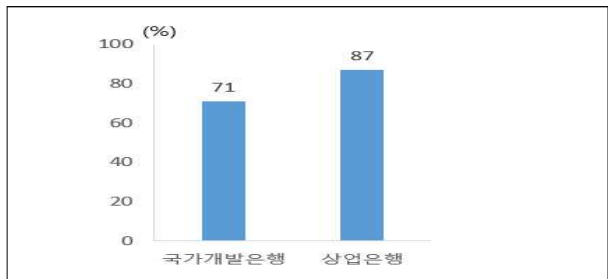
* 장기·고위험 프로젝트 지원 특성상 채권발행에 대해 정부가 보증을 제공

** 개발은행의 경우 예수금 수취시 만기불일치에 따른 유동성리스크 문제가 나타날 수 있지만 다른 자금조달 대안이 부족한 저소득 국가의 개발은행은 주로 예수금을 수취

국가개발은행의 자산규모별 부채조달 비중



은행형태별 부채조달 비중



주 : 부채조달 비중 = 총부채/총자산
 자료 : 북경대 신구조경제학연구원

□ 국가의 개발단계, 산업구조 차이 및 개발은행의 설립목적에 따라 자금의 조달 구조 형태가 상이

- 저소득 국가의 개발은행은 채권발행의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
 - 국가소득별 채권발행 기관수 비중 : 저(18.2%), 중하위(37.8%), 중상위(55.7%), 고(47.2%)
- 인프라 및 스타트업·중소기업 등의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개발은행은 사업위험 때문에 부채조달 보다는 자본조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
 - 설립목적별 부채조달 비중(평균 71%) : 인프라(52%), 스타트업·중소기업(67%), 무역(78%), 지방정부(82%)